

민주 총선모드... 불 붙은 권리당원 모집

중앙위, 공천률 최종 확정 당원 모집, 경선 최대 변수 선관위, 불·탈법 모집 조사 시당, 등록 업무 인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공천률 결정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률을 1일 확정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등 지역정세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특히 권리당원 모집이 당내 경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지역의 민주당원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4만5000여명을 돌파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회의를 열고 밀려드는 권리당원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등 사실상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또 최근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적발된 광산구갑·을지역의 온라인 당원 불법 모집과 관련해 시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법 권리 당원모집'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총선 공천률을 확정하기 위해 당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선 당원들끼리 분열을 경계하고 철동같은 단결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찌감치 공정한 공천률을 확정해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은 지금 60여년 정당 역사상 가장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전원 경선과 정치 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골자로 한 총선 공천률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진행된 권리

당원 투표 결과 50%(찬성 84.1%)와 이남 중앙위 투표 결과 50%(찬성 91.5%)를 합산해 공천률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 신인은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렸다. 또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선률이 확정되면서 권리당원 모집에도 불이 붙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권리당원 등록 업무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광주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최저 2만7000여명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3만2000명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평소 1~2명을 투입했던 권리당원 입력 업무 종사자수를 5명으로 늘렸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신청서 밀려들 것으로

보고 해당 업무 종사자를 1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앙당을 통해 직접 입당하는 당원을 감안한다면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광주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의 수는 8월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한 주소지에 다수의 당원이 모집되는 등의 '불법법 권리 당원모집'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광산지역의 온라인 불법 당원 모집 사건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혁신위, 바른미래 내홍 잠재울까

공식 출범...총선 비전·정책성 결론 '과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주대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 첫 회의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다"며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분들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9명은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총 한 달 반 동안 활동한다. 주 위원장은 "당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혁신위원직을 기꺼이 맡아준 8명의 젊은 리더들에게 감사하다"며 "저는 혁신위 별칭을 'U-40 위원회'로 불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뺀 나머지 혁신위원들이 모두 40세 이하로 구성된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 내외에서는 혁신위가 당의 정체성 문제 및 당 지도부 거취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고작 1개월 반이라는 점에서 고질적인 당의 정체성 문제를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 대표 등 지도부 거취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손 대표 퇴진 문제를 두고 무려 3달 가까이 극한 갈등을 지속했고, 혁신위 구성 자체도 당권파와 퇴진파가 절판씩 구성됐다는 점에서 짧은 활동 기간 내에 결론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에서 당의 정체성 및 지도부 진퇴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바른미래당은 다시 내홍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출신과 당권파·호남 의원들 간의 합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대등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맡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기로 한 것에 대해 "정개혁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일부와 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되리라 보지만 사법개혁위는 굉장히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아마 사법개혁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美, 사실상 북한 체제보장"

라디오 프로 출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 "미국이 저런 식으로라도 사실상 북한의 체제 보장의 길을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대'에 출연해 "발표는 안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실무 단계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선 "36살의 북한 최고지도

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대등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맡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기로 한 것에 대해 "정개혁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일부와 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되리라 보지만 사법개혁위는 굉장히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아마 사법개혁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온지

주승용, 오늘 국회서 '붉은 수돗물' 토론회

국회 물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수도의 노후화 및 수도 사업 관리규정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수도사업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는 것은 물론 김길복 수도경영연구소장, 현인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

수가발제를 맡아 주 제발표를 한다. 주승용 부의장은 "인천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수관로를 포함한 많은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명한 대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앞으로 여당 도울 일 없다" 빨 난 정의당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 정의당 뒤편 정개혁위원장 교체 반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달력 합의'에 나섰다가 정의당-민주평화당과의 공조가 흔들리는 등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더이상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

화 협상에서 정의당 뒤편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뒤편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은 정개혁위 위원장 교체와 관련한 내용이 교섭단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전 협의는 커녕 사후에도 아무 설명이 없었다"며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개혁공조를 선택할지 한국당과 거대양당 기득권 담합으로 공조를 와해할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야 3당이라도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무원칙과 무신(無信)의 민주당을 언제까지나 포용하고 협력할 수는 없다. 선을 그을 때는 과감히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탐대실한 것 같다"며 "이런식으로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9월 정기국회 및 예산국회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해상·화재보험 | SAMSUNG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